

공기업 '작년 수준' 출연기관 '매우 부진'

올해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기업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출연기관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A등급, 그리고 환경공단은 다에서 나로 한 단계 올랐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유지했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나에서 다등급으로 하락했다.

4개 공기업을 놓고 평가할 때 평년 수준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12개 출연기관 평가결과는 지난해와 비교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과 광주발전연구원을 제외한 10곳이 보통 이상인 B등급을 받았지만, 우수등급으로 분류된 A등급은 확 줄었다.

지난해는 디자인센터, 여성재단 등 8곳이 A등급이었으나 올해는 빛고을복지재단 등 4곳에 불과했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평가 결과 90점 이상은 S등급으로 분류되며, A등급은 80점 이상, B등급은 70점 이상, C등급은 60점 이상이다. D등급은 60점 미만이다.

광주문화재단, 광주여성재단 등 B등급은 6곳, C등급은 2곳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A등급에서 C등급으로 추락했다.

디자인센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도 B등급

광주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도시공사 '가' 환경공단 '나' 등급 12개 출연기관 A등급 4곳 불과 매달 시장 주재 경영평가 점점

으로 밀려났다. 광주시는 이 보고서에서 일부 기관의 업무 미숙과 임직원 기강에 사래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출연기관 중 기관장이 교체됐거나 공식상태였던 기관이 미흡했다"며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광주시가 선정한 외부 전문 경영평가기관(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개 평가 지표로 실시했다.

올해는 출연기관 사업성과 배점을 지난해 40점에서 60점으로 늘렸고, 사업 수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 수준 적정성 평가(난이도 평가)도 도입했다.

또 출연기관의 외부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대 시민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를 처음으로 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민선 6기 2년차 산하 기관 추진방향으로 시와 공공기관 간 협력 시스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1일 운영현 시장이 직접 주재한 '제1차 시 공공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열고 각 기관별 경영효율과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공사·공단 4곳과 출연기관 등 총 22개 시 공공기관장과 실·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말 실시한 민선6기 시 공공기관의 조직 및 경영효율화 개선 과제의 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공공기관별 경영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운영현 시장은 "공사, 공단, 출연기관은 시장의 문화, 경제, 교통 등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 경영을 위한 상시 개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시와 공공기관이 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미처 살피지 못하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달 시장 주재로 공공기관장 전체 회의를 해 경영평가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현안 및 애로사항은 일대일 토론 등을 거쳐 실행방안을 찾은 계획이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2년연속 파업하나

임금협상 지노위 조정 결정

14~15일 파업 찬반 투표

광주 시내버스 임금협상 조정회의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시내버스 노조는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파업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광주 시내버스 임금협상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됐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 40분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운전자의 날' 하루를 유급휴가에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조정에서 노조는 통상 시급(時

給) 3.88% 인상 요구안을, 사측은 통상 시급 3.67% 인상안을 최종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다른 광역단체 시내버스 임금 인상율은 평균 3.71%로, 부산 3.8%, 서울·대구 3.7%, 대전 3.65%였다.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6월에도 임금협상 결렬로 12년만에 버스 파업을 했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광주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노조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시는 시와 구청에 60명 규모로 비상대책 상황실을 마련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평소의 70% 수준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상수송 노선을 확보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18 왜곡세력 강력 대응·기념사업 예산 논의

새정치 광주시당-5·18단체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13일 5·18 단체들과 만나 5·18 왜곡 세력 대처와 정부의 기념사업 예산 등을 논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박재하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5·18 기념재단에서 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5·18 민주화운동 왜곡 세력 대응 및 관련법 개정, 기념재단 사업비 확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

5·18 단체들은 지난번 등 5·18을 왜곡, 폄하하는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와 역사 왜곡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5·18 왜곡은 시급한 문제인 만큼 당에서도 함께 해결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5·18 유공자 비하 메시지를 SNS에 유포한 고양시의원 건은 국회에 돌아가면 고양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함께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일부 5·18 유산의 원형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과 5·18 특별법 제정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사진전을 11월 국회의원회에서 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건의 등도 나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70년만의 귀향 12일 일본 홋카이도 슈마리나리 우류에 있는 코켄지에서 열린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추도식에서 유골 4위가 고향으로 봉환되고 있다. 코켄지는 지난 1938년부터 1943년까지 6년간 건설된 당시 동양 최대 규모(발전용량 500Kw)인 우류댐 공사 현장에 강제 동원됐다가 숨진 조선인 유골 4위가 모셔져 있다. /연합뉴스

저농약 인증제 완전 폐지 대책 있나

전남도의회 이틀째 도정질의

전남도의회는 10일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 이어 1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정에 대해 질문했다. 이틀간 도정질문을 마친 전남도의회는 14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및 현장 활동을 벌인 후 15일 오전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함께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탁(목포4)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전남 교육발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다.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책 시급"=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박철홍(목포·비례) 의원은 지난 11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 여성장애인을 위해 임신·출산 전문병원 지정·운영과 공공산후조리원에 여성장애인 전용 병상(2실)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여성장애인에 대한 산후도우미 자부담비 지원 및 이용기간 확대와 장애여성의 출산과 육아 정보가 담긴 통합매뉴얼 제작·배포 등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저농약 인증제 완전 폐지 대책 수립해야"=이준호(장성2) 의원은 정부의 2016년 저농약 인증제 완전 폐지 계획에 따른 과수 생산농가의 학교급식 공급 축소 및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과 학교급식 지원금 지도·점검 강화, 정부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 추진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준조 전남도 농업축산식품국장은 "과수 무농약 인증 장려금 상향과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을 검토하고, 학교급식에 수입과일과 타지역 과일을 도내 생산 과일로 대체하도록 학교 영양사 등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우개량사업 예산 늘려야"=이창호(구례) 의원은 한우개량사업 예산이 사육두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우 사육기반이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전남의 경우 고작 4만 여두에 2억8000천만원의 한우개량사업 예산을 편성했다"며 "사업예산 규모가 전국 7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말 주민발의했으나 여전히 농수산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http://naju.booyoung.co.kr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절대가치 - 「사랑으로」 부영 임대분양!

- 호남고속도로, KTX광주송정·나주역,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등
- 전남과학고, 전남외고 등의 특목고, 혁신도시내 4개 초교, 3개 중교, 2개 고교 신설 예정
-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 이전 및 이전 예정, 신항연 클러스터 조성 등 자립형 위성 신도시
- 중앙호수공원 중심의 문화시설을 갖춘 테라스 거리, 한옥전통마을, 18홀 골프장, 배메산 등
- 임대분양으로 손쉬운 내집 마련의 기회와 혜택

총 708세대 * 전용면적 60㎡ 72세대 / * 전용면적 84㎡ 636세대

공급 일정	■ 지방이전종사자 특별공급: 9/16 (수) ~ 9/18 (금)	■ 1순위: 9/21 (월)
	■ 특별공급 (기민추천 외): 9/18 (금)	■ 2순위: 9/22 (화)

모델하우스 061)333-8730~1 전국어디서나 1577-5533

본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 및 내용, 문구는 소수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주소: 전남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49-4번지
 광주전남혁신도시 B3블록 * 공급위치: 광주·전남공공혁신도시 개발사업 B-3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아파트 지하층, 지상15~23층 9개동 708세대 및 부대시설 * 분양대상: 시·군·자치단체 * 시흥 및 시흥: (주)부영주택